

알고도 당하는 ‘이강인 GPS 킥’… 우승 열쇠는 ‘세트피스’

결승상대 우크라이나 수비 탄탄하지만 한국 세트피스·코너킥 상황서 4골 폭발
이강인 킥과 약속된 플레이 완성도 높아

한국 20세(U-20) 대표팀이 국제축구연맹(FIFA) U-20월드컵 마지막 무대에 선다.

한국은 16일 오전 1시(한국시간) 폴란드 우치에서 대회 결승전을 펼친다. 상대는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는 이번 대회에서 6경기를 치르는 동안 3골만 허용했을 정도로 수비 조직력이 뛰어난 팀이다. 8강 콜롬비아전, 4강 이탈리아전에서는 연속 무실점을 기록했다. 터프한 플레이를 통해 상대의 공격을 잠재우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한국이 공략하기 만만치 않을 수도 있는 만큼 결승전 무대에서는 세트피스의 중요성이 더 강조될 수 있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6경기를 치르는 동안 8골을 넣고 있다. 이 중 세트피스를 통해 얻은 득점은 2골이다. 세네갈과의 8강전에서 후반 추가시간 코너킥 때 이지솔(20·대전 시티즌)의 헤딩골이 터졌다. 에콰도르와의 4강전에서는 프리킥 찬스에서 최준(20·연세대)이 결승골을 넣었다.

명확하게 세트피스 골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세트피스를 얻어 연결된 플레이로 얻어낸 골 장면은 2차례 더 있었다. 조별리그 2차전 남아공과의 경기에서 김현우(20·디나모 자그레브)의 골이 코너킥에서 연결된 플레이에서 나왔다. 세네갈과의 8강전에서는 코너킥에서 연결된 플레이를 하는 과정에서 페널티 킥을 얻었고, 이를 이강인(18·발렌시아)이 성공시켰다.



한국이 세트피스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좋은 킥과 약속된 움직임이 잘 맞아떨어진 덕분이다. 코너킥과 프리킥 등을 전담하는 이강인의 원발 킥은 정확도가 매우 높다. 세네갈전 이지솔의 골과 에콰도르전에서의 최준의 골은 철저하게 약속된

움직임과 정확한 킥이 만들어낸 합작품이었다. 득점 장면 이외에도 세트피스를 통해 슈팅까지 이어가는 플레이가 깔끔하게 잘 이뤄지고 있다는 게 정정용호의 장점이다.

에콰도르전 결승 득점 장면에서 이강인은 프리킥을 차지 않고 고민하는 척 연기까지 펼치면서 크로스가 아닌 전진 패스를 통해 최준의 골을 이끌어내며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어린 태극전사들이 결승전에서도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창조적인 세트피스로 골을 만들어내며 우승 트로피와 우승 메달을 한국으로 가져올 수 있을지에 많은 축구팬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2002년의 6월처럼... 전국서 거리응원 펼친다. 다시 붉은 물결이 전국을 휘감는다. 1983세계청소년선수권 4강 진출을 이뤘던 박종환 감독이 여주에서 길거리 응원에 동참하는 가운데 서울과 인천, 수원, 파주 등 경인권을 비롯해 대전과 대구, 광주, 전주, 경주 등 여러 지자체에서 대규모 응원전이 펼쳐진다. 2018라시아월드컵 당시 광화문광장 응원전 모습.

스포츠동아DB

‘1983’ 4강 신화 지휘...박종환 감독도 여주서 거리응원

U-20 기적의 드라마, 유스에서 길을 찾다

15일 여주시청 광장서 대규모 응원
이항진 여주시장 “화합 다지는 기회”

경기도 여주시가 1983년 멕시코 세계청소년선수권 대회 4강 신화를 일궈낸 박종환 감독(81)과 함께 20세 이하(U-20)대표팀 응원에 나선다.

여주시는 “16일 오전 1시 폴란드에서 열리는 국제축구연맹(FIFA) U-20월드컵 결승전에 나서는 한국 U-20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하며 거리 응원전을 벌인다”고 13일 밝혔다.



이항진 여주시장



박종환 여주FC 총감독

이번 거리 응원전에는 U-20월드컵의 전신인 1983년 멕시코 대회에서 대표팀을 이끌었던 박종환 감독도 참여한다. 박 감독은 현재 여주FC 총감독을 맡아 여주시와 인연

을 맺고 있다.

이번 거리 응원은 15일 오후 10시 여주시청 광장에서 시작된다. 경기 판막에 앞서 여주 민예총 풍물놀이패, 여주대학교 치어리더 팀, 그룹사운드 공연 등이 펼쳐진다. 또 경기 시작 전 박 감독을 무대로 초청해 36년 전 4강 신화를 이룰 당시를 회상하는 시간도 갖는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여주는 얼마 전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유치에 실패했지만, 우리 U-20대표팀은 반드시 우승하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박종환 감독과 함께 하는 이번 거리 응원이 축구를 통해 여주 시민들의 기쁨을 나누고 화합을 다지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남장현의 피버피치

정정용호 최종엔트리 21명 중 19명
유소년팀서 성장하거나 K리그 소속

요즘 한국축구의 열기가 뜨겁다. 파울루 벤투 감독(포르투갈)이 이끄는 A대표팀은 가는 곳마다 매진 행렬을 이루고, U-20대표팀은 폴란드에서 진행 중인 2019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에서 결승에 안착, 축구 ‘봄 업’에 크게 공헌하고 있다.

우리네 축구의 뿌리이자 젖줄인 K리그도 활짝 웃는다. 정정용 감독이 지휘하는 U-20대표팀(최종엔트리 21명)에는 K리그와 직접 연결된 선수들이 19명이나 된다. 현재 K리그 팀에 몸담고 있거나 유소년 육성 시스템에서 성장한 이들을 모두 합친 숫자다.

K리그는 ‘필승부름’ 떡잎을 찾아내고 미래의 스타로 성장시키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7년 한국프로축구연맹 주도로 시작한 유스 트러스트 정책이다. 클럽 라이선스를 보유한 K리그1·2 구단들의 유소년 시스템을 2년 주기로 평가, 측정해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적절한 처방을 내려주는 데 목적을 가진 제도다. 수많은 평가 항목 중에는 ▲시스템 운영 비전 ▲구단의 관심과 지원 프로그램 ▲인프라 구축 ▲스카우트 운영 등이 있다.

유스 트러스트는 벨기에 축구협회가 2000년 시행한 더블패스에서 영감을 받았다. 2000유럽선수권 예선 탈락에 큰 충격을 받은 벨기에의 축구 강호들이 준비한 유럽 내에서 생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고, 유소년에게 미래를 얻자는 결론에 도달했다.

첫 술에 배부를 리 없지만 이러한 노력은 큰 성공을 거뒀다. 협회와 클럽 등 벨기에 축구

구성원들이 애지중지하며 발굴하고 기른 선수들은 유럽 바리케이드에서 맹위를 떨쳤고 지금도 맹맥을 이어가고 있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위에 등극하는 등 꾸준한 상위권을 유지하는 배경에 더블패스가 있다고 벨기에 는 자부한다.

K리그의 열정도 이 못지않다. K리그 유스 주말리그가 거의 전 연령대에서 진행 중이다. 최고 연령대인 18세는 물론, 17세와 15~16세 리그가 별도로 운영돼 경기 출전에 사각지역을 최소화했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상·하 위리그를 진행해 고른 실력 향상을 도울 계획이다. 또 방학기간에는 주요 해외클럽을 초청해 국제 경쟁력을 끌어올린다. 과학 지원 프로그램도 인상적이다. 유스리그 경기영상을 기반으로 한 각종 데이터를 코칭스태프뿐 아니라 모든 선수들과 학부모들에게도 함께 제공한다.

대한축구협회도 유소년 성장에 각별한 관심을 보인다. 올해 초 협회 기술 및 대회운영 담당자들은 벨기에와 독일, 크로아티아를 방문해 유소년 시스템 확충 및 육성을 중심으로 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더블패스와 연계된 정보, 크로아티아 유소년 친선경기 추진 안, 바이에른 뮌헨(독일)의 유소년 프로그램 등이 초점이다.

한국축구는 분명 새로운 시대를 열어젖힐 귀한 동력을 얻었으나 지금에 안주할 수 없다. 당장 주변의 시기와 견제도 심하다. ‘축구굴기’에 목숨을 걸고 아낌없이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붓는 중국, 일찌감치 아시아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갖추고 성장을 늦추지 않았던 일본을 쉽게 볼 수 없다. 이런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우리의 경쟁력은 유소년을 뽑을 수 있다. 결국 ‘축구DNA’를 갖춘 어린 재능의 지속적 인 발굴과 육성에서 길을 찾아야 한다.

yoshike3@donga.com

“강인아, 1군 출장 보장할게 우리팀으로 와”

아약스·PSV·레반테 등 잇단 러브콜
U-20월드컵은 이강인 쇼케이스 무대

‘슛돌이’ 이강인(18·발렌시아)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이강인은 폴란드에서 펼쳐지고 있는 2019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이 낳은 최고의 스타다. 그는 이번 대회에서 1골·4도움으로 맹활약을 펼치면서 한국 U-20축구대표팀이 결승까지 오르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번 U-20월드컵은 사실상 이강인의 쇼케이스 무대다. 소속팀 발렌시아에서는 즐비한 스타급 선수들에 가려 출전기회를 잡지 못했지만, U-20대표팀에서는 주축선수

로 활약하면서 자신의 진가를 뽐내고 있다.

발췌부터 이강인에게 러브콜을 보내는 팀들이 쏟아지고 있다. 네덜란드 에레디비시의 명문 아약스와 PSV아인트호벤이 잇따라 관심을 보내고 있다. 아약스가 이강인에게 관심이 높다는 것은 이미 며칠 전부터 외신을 통해 알려진 사실이다. 발렌시아 지역매체인 수페르데포르테는 13일(한국시간) “아약스가 먼저 이강인에게 관심을 나타냈다. 불과 얼마 되지 않아 아인트호벤도 이강인에게 흥미가 있음을 밝혔다. 이강인을 향한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두 팀의 경쟁이 치열하다”고 보도했다. 네덜란드 매체 엘프푸트 발은 “유럽 클럽들은 이강인을 최정상급 선수로 성장할 유망주로 평가한다. 박지성처럼 정신력도 강하다. 재능에 정신력이 더해

진 세계최고의 유망주 중 하나”라고 극찬했다.

스페인 프리메라리가의 레반테도 꾸준히 이강인에게 관심을 가졌던 팀 중 하나다. 마르카, 아스 등 스페인 현지 매체들은 U-20월드컵 조별리그가 시작할 무렵부터 레반테가 이강인에게 1부리그 출전 기회를 보장해주는 조건을 내걸며 영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이강인은 발렌시아와 2022년까지 계약돼 있다. 발렌시아는 이강인의 바이아웃 조항까지 걸어놓을 만큼 공을 들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새 시즌 출전시간을 보장하기는 어렵다. 수페르데포르테는 “아약스는 젊은 선수들을 영입해 성장시키는 철학이 있다. 그러나 발렌시아는 그러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정지욱 기자

편집 | 안도영 기자 do02@donga.com